

대학생의 성교육 효과측정을 위한 기초 연구

장순복*, 최연순*, 강희선**, 박소미*

I. 서론

오늘날 사회가 고도의 산업사회로 변모함에 따라 사회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해졌고 이에 따라 우리의 의식구조에도 변혁을 가져오게 되었다. 급격한 사회, 문화의 변화로 성에 대한 정보의 범람과 성개방 풍조로 인한 성의식 및 가치관의 큰 변화는 성윤리와 성도덕에 대한 갈등과 성문란을 야기하여 이로 인해 성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서울 YMCA(1993) 청소년상담실 9년간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상담을 의뢰해오고 있는 성문제유형의 연도별 추이는 생식기 기능, 임신, 출산 등과 같은 성지식이나 자위행위, 성심리, 성욕구 등 2차성징관련 신체변화나 심리적 적응 등에 대한 문제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상대적으로 성피해, 성교, 근친상간 등 직접적인 성행동에 관련된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런 청소년 성문제의 변화는 청소년들이 성지식 관련정보에 많이 노출되어있으나 그러한 정보가 성행동과 관련된 의사결정 능력과 책임감을 인식하도록 하는 데는 도움을 주고 있지는 못하다고 볼 수 있다(이명화, 1993). 이는 청소년들의 성지식 습득경로는(이만영, 1992; 박애신, 1993; 양해경, 1996; 양성숙, 1992) 다양하지만 정규적이고 체계화된 성교육이라기 보다는 대중매체나 친구,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만화를 통한 정보가 대부분이어서 단편적이고 흥미 위주의 성지식을 행동지침이 없이 얻게되어 부정확한 성지식과 왜곡된 성인식을 가지기 쉬워 올바른 성태도와 가치관 형성을 도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박애신, 1993).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서울시

내 초·중·고생들은 1997학년도 1학기부터 정규 교과서에서 성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조선일보, 96. 8. 19)라고 발표했고, 이에 포함될 내용은 크게 남녀 신체의 생물학적 구조, 이성교제, 성폭행 예방법, 성병 예방과 치료 등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각종 성적 비행과 관련된 내면적인 문제는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제 사회현실에는 활용할 수 있는 성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올바른 성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성교육을 공식 교과목으로 지정하고, 학년, 연령에 따라 확립적으로 다루어지기보다는 각 개인의 특정한 감정적, 사회적 요구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대상자의 요구에 적합한 내용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는 물론 가정, 혹은 직장과 사회에서 성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이중범, 1993; 김정옥, 1988; 김여옥, 1993; 김상조, 1993).

우리는 현재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 차원에서 성교육을 시도해야 하는데는 합의하고 있으나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근거있는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다. 각 개인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과 성교육 요구도를 성교육 전에 파악하여 실시할 성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계획하고, 각 개인의 요구도에 맞는 적절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이 선정되어야 한다. 한편 성교육 후에는 성교육으로 인한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다음단계의 성교육을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모성간호학 교실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가정간호연구소 연구원

위해서는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함이 필연적임에도 불구하고 성교육 효과 측정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성교육 실시 전·후 각 개인의 성교육 요구도와 개인이 경험한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성교육 효과 측정도구 개발을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성교육 실시 후 대상자 자신이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고 자유롭게 진술하도록 하여 성교육의 효과를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개발을 위한 예비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문헌고찰

1. 성교육

문교부 성교육 기초자료(1983)에 의하면 성교육은 인간존중의 정신에 입각한 인간교육, 전인교육으로서 좋은 생활습관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성지식 습득, 올바른 성의식, 분별있는 성윤리관 확립 등을 목표로 하고있다. Harris (1974)는 성교육이란 어떤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며 성과 관련된 기술을 가르치는 기능적인 것도 아니다. 또한 성도덕을 위한 특정한 태도를 부과하려는 것도 아니다. 가능한한 최대의 지식을 가르칠 뿐 아니라 성적인 행동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결과적으로 생을 잘 영위하게 하는 것이 성교육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성교육은 좁은 의미의 생물학적 교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아이해와 그것을 통한 각 개인의 특성을 일깨워주고, 그것에서 부터 개인들의 미래의 생애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고 현대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하며 신속한 변화 속에서 전략적인 또는 계획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남녀평등과 인간화, 1989).

미국에서 지난 15-20년 동안 수많은 성교육 교과과정이 개발되고, 시행되어 왔는데 이들은 크게 5가지 형태로 나뉘어질 수 있다(Kirby, 1992). 첫째, 지식의 증가와 임신의 위험과 그 결과들에 초점을 두고 있고, 둘째, 전반적인 지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가치를 명확히하고 능력 중에서 특히 결정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더 강조하며 셋째, 기존의 프로그램에 반대하여 성교가 결혼할 때까지는 행해져서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혼동을 막기 위해 이 프로그램에서는

금욕만을 강조할 뿐 피임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넷째, HIV/AIDS교육 프로그램으로 성행동을 변화시키도록 고안됐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들은 다른 건강분야에서 효과적이라는 건강신념모델, 사회학습이론과 같은 이론적 접근에 기초를 두고 있다.

Kirby와 Alter(1980)는 여러 곳에서 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조와 내용에 관한 논란이 있음을 알고 문헌고찰과 전문가들과의 토의후 잠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교육 프로그램 특색 14개 항목들과 중요한 결과 항목 92개를 추출하여 성교육 전문가들에게 각 항목들을 평가하도록 했다. 그 결과 성교육 프로그램 결과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역들은 지식, 자아의 이해, 가치변화, 성적 그리고 일반적 자아존중감 향상, 관계능력 향상, 성과 관련된 활동들에 대한 두려움의 변화로 나타났다.

결국 성교육이란 생리적 차원에서의 성 뿐만이 아니라 사회, 심리, 윤리, 도덕 등의 정신적 차원에서의 접근을 통해 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함을 시사한다(박순선, 1993). 즉 올바른 성교육은 인격의 형성을 목표로 인간발달과 사회생활에서의 인간관계에 관한 교육이어야 함은 물론 성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불확실한 성지식의 부적응과 정신적인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고 바람직한 태도에 근거하여 책임 있는 성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성교육 효과와 관련된 선행연구

성에 관한 지식을 증대시키고 태도와 행위를 변화하는데 성교육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성교육의 효과에 관한 연구가 점차 진행되고 있다.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교사,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진선(1995)은 성교육이 국민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6학년 남·여 학생 130명을 대상으로 생명의 탄생, 몸과 마음의 성장, 남자의 변화, 여자의 변화, 남녀역할과 협력, 성폭력의 6개 영역으로 구성된 성교육을 6차에 걸쳐 실시한 후 성지식과 성태도를 측정한 결과 성교육이 국민학생들의 성지식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태도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학생의 올바른 지식과 바람직한 태도변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구

체적인 성교육이 장기적으로 연계되어 실시되어야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박순선(1993)은 초등학교 5·6학년 197명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문헌을 토대로 고안한 질문지를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성교육 전에 성에 관한 지식과 태도를 측정하고 성교육 2시간 강의와 1시간 비디오 상영을 실시한 후 성에 관한 지식과 태도의 차이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성교육의 효과를 알아본 결과 성교육이 아동들의 성에 관한 지식 및 태도에 변화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귀현(1985)은 남녀 고등학교 여학생 최종 114명을 대상으로 교육 전에 연구자가 고안한 질문지를 이용하여 고등학교 여학생의 성에관한 경험·태도·지식을 파악하였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고안한 청소년기의 발달, 임신과 분만, 산전 및 산후관리, 가족계획이 포함된 모자보건, 성병, 미혼모의 내용을 다루는 성문제, 인간과 성, 순결과 성도덕을 다루는 성윤리로 구성된 성교육을 실시한 후 성에 관한 인식 및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알기 위해 성에 관한 대화, 자위행위, 혼전 성관계, 인공유산, 성교육, 성욕, 이성교제 등에 관련된 내용을 사후조사하였다. 연구결과 교육후 성에 관한 지식이 높아졌고, 교육후 성에 관한 인식 및 태도에서는 자위행위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 벗어나도록 하는데 효과가 있었으며, 인공유산에 관한 인식은 성교육전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54.4%에서 교육후 82.5%로 증가했으며, 인간의 성욕에 관해서는 61.5%정도가 성교육전에는 성욕을 이성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응답했는데 교육후 79.9%로 증가하였다.

Russell-Brown, Rice, Hector, 그리고 Bertrand(1992)에 의하면 성문제에 관한 지식은 십대의 생식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중요 요인들 중의 하나라고 주장하여 성교육의 효과를 조사한 결과 성교육은 인간 생식기능과 피임법에 관한 지식을 증가시키고(Kirby, 1984; Parcel & Luttmann, 1981), 성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로 하여금 더 일찍 성행위를 하도록 한다고 주장하는 성교육 반대자들과는 달리 성교육은 성적 활동을 일찍 시작하도록 하지 않는다는 다른 연구(Zelnick & Kim, 1982)를 뒷받침했다.

또한 올바른 성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성에 대한 태도와 관심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Levenson-Guingiss와 Hamilton(1989)은 성교육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지식, 태도, 관심의 변화를 59명의 중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일주 프로그램(40시간) 연수교육 일주 전과 일주 후에 조사했다. 그 결과

연수훈련이 지식,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중요성의 인식, 교육과정을 가르치려는 의도, 교육내용에 대한 자연스러움의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했다. 성교육은 지도교사의 자질과 역량에 따라 그 효과와 성패가 좌우되기(홍길유, 1989) 때문에 성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먼저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가 성에 관련된 충분한 지식과 성교육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인숙(1994)은 서울시내 일개 대학교 남녀대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 및 성교육 요구에 관해 조사한 결과 성지식은 최고 25점 중 평균 14.90을 나타냈고, 성태도 점수는 최고 33점 중 평균 17.72를 나타냈으며 가장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 문항은 혼전임신의 책임에 대해서였고,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 문항은 여성의 혼외성교에 대해서였다. 대상자의 성경험 중 자위행위 경험이 있는 학생은 60.9%, 성교 경험이 있는 학생은 18.5%를 나타냈다.

Turner의 6인(1994)의 대학 신입생 세미나를 통한 책임감 있는 성행동 향상을 위한 연구에서 성교육 과정 후 성병에 대한 지식과 성행동에 대한 태도, 피임 사용 횟수, 금욕, 성교 상대자의 수에 관한 성행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세미나에 포함된 성교육과정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참석한 학생들에게서 성지식, 태도, 행동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세미나 성교육과정에 참석한 남학생들 사이에서 금욕은 증가되었고, 위험유발 성 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Mims와 Brown과 Lubow(1976)는 3일간의 집중적 성교육 프로그램이 성지식을 증가시키고 성태도를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효과적인지와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이익을 얻는지를 측정할 목적으로 의대2년생 86명, 간호대 4년생 61명과 대학원생 25명, 심리학과 대학원생 14인 총 18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Sex Knowledge Attitude Test(SKAT)와 미네소타대학에서 사용된 것을 수정한 평가서를 사용하였다. SKAT도구 중 3영역이 사용되었는데 1부는 이성관계, 성적신화, 유산, 자위에 관한 35문항으로 이루어졌고, 2부는 실제 지식에 관한 71항목, 3부는 일반사항이고, 4부는 인성 경험과 관련된 것은 이 연구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연구결과 전체 대상자에게서 지식이 현저히 증가했고 태도 변화에서는 유산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더 개방적 이해 쪽으로 변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유산에 관한 태도가 유의하게 변하지 않은 것은 이 성교육 프로그램에서 유산에 관하여 다루어지지 않았기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성교육은 성에 관한 학생들의 지식을 명백히 증가시키고 있으나 태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종합하면 성교육 효과는 왜곡된 인식의 변화, 성적, 이성적 통제력 증가, 성에 대한 정서적 자연스러움의 증가, 성관련문제에 대한 신념형성, 혼전임신에 대한 책임증가, 위험행동의 감소, 성적 인식의 개방과 성행동의 보수성이 증가되기를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성교육 효과측정은 지식의 변화, 인식 및 태도의 변화, 행동의 변화만 측정하고 있다. 이 점은 성교육의 효과를 지식, 태도라는 방식으로 측정하는 것은 적절한가? 라는 의문과 의사결정적이고 행동능력 차원의 변화가 측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또한 각 연구마다 측정내용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성적인 의사결정 능력이나 성행동까지의 변화에 대한 효과측정의 타당성과 유용성이 모두 포괄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단일 문항의 개방형 질문에 자유롭게 서술할수 있게 한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 얻어진 결과의 내용을 분석한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서울에 소재한 Y 종합대학에 재학 학생중 "성교육" 과목을 수강한 남·녀 대학생 1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는 대상자가 "성과 남녀관계"란 강좌를 통하여 대상자 자신이 수강전과 후를 비교할 때에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 상세하고 자유롭게 진술하도록 한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성과 남녀관계" 교과목의 내용은 성과 대중매체, 성과

문화, 성병, 가족계획, 원하지 않는 임신, 성폭력, 현대 청년의 성문제, 인간의 성욕구, 인간의 성생리, 동성애, 이성교제, 결혼과 성으로 구성되었다. 일반적 특성은 학년, 전공계열, 성별, 연령, 군복무 상태, 이성친구 유·무로 구성되었다. 개방형 질문의 내용은 "본 강좌에 참여하기 전후를 비교하여 자신이 경험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였고, 최소한 15분이상 기록하도록 하였다.

4.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은 1996년 9월 7일부터 12월 14일 까지 매주 3시간씩 14주간 총 42시간 강의와 토론에 참여한 후 1996년 12월 14일 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186명 중 조사에 동의한 대상자들에게 질문지를 배부하고 당일 회수하였다. 원하지 않는 사람은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연구결과와 비밀보장과 익명성을 약속하였다. 배부된 질문지는 총 186 부이며, 회수된 질문지는 155 부로 회수율은 83% 였다. 이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 4명이 각 응답자의 진술을 읽어 의미있는 진술을 뽑고, 유사한 의미를 지닌 진술들을 분류하고, 비슷한 진술끼리 묶어 범주화 하였으며, 범주화된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를 위해 4회에 걸쳐 개념의 통합성에 대해 4명이 동의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인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1>.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이 85명(54.8%), 여학생이 70명(45.2%)으로 총 155명이 였다. 연령 분포는 19세부터 27세로 평균 연령은 22세 였다. 학년별 분포는 1학년이 25명(16.1%), 2학년이 40명(25.8%), 3학년이 47명(30.3%), 4학년이 43명(27.8%)으로 3학년 학생이 가장 많았다. 남학생 중 군복무를 한 사람은 40명(47%), 안했다고 답변한 사람은 45명(53%)으로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성친구 유·무에 관해서는 100명(64.5%)은 이성친구가 있다고 했고, 55명(35.5%)은 이성친구가 없다고 했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분포 (n=155)

특성	구분	인수	비율(%)
성별	남	85	54.8
	여	70	45.2
연령	20세이하	39	25.2
	21-25	105	67.7
	26세이상	11	7.1
학년	1	25	16.1
	2	40	25.8
	3	47	30.3
	4	43	27.8
군복무	했음	40	47
	안했음	115	53
이성친구	있음	100	64.5
	없음	55	35.5

2. "성교육" 강좌를 통해 경험한 변화

성교육후 경험한 변화 내용으로 나온 응답은 총 419개였다. 이를 내용분석의 과정을 거쳐 성역할, 지식의 부족인식, 가족의 중요성, 생의 계획, 부모역할, 생명의 존엄성, 남녀동등성, 성적자율성, 성의 중요성, 성적자유, 성문제 인식, 사랑의 의미, 성정체감, 가치관, 지식의 수정, 정보획득, 지식의 구체화, 성에 대한 부정적 감정 탈피, 성에 대한 긍정적 느낌, 성에 대한 부정적 느낌, 자연스러워짐, 개방적이됨, 민감해짐, 솔직해짐, 노력의 시도, 조심스러워짐, 책임감이 생김, 자신감이 생김, 문제해결능력, 성교육능력, 이성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성관련 행동의 33개의 영역과 깨달음, 자아정립, 지식의 변화, 정서의 변화, 태도의 변화, 능력형성, 행동변화의 총 7개로 범주화하였다. 성교육 강좌를 수강한 후 경험한 변화〈표 2〉들을 각 범주별로 서술하고자 한다.

〈표 2〉 "성교육" 후의 변화내용 분포

반응수(%) (n=419)		
	구분	빈도(%)
지식의 변화 120(28.6)	지식의 수정	11(2.6)
	정보획득	64(15.3)
	지식의 구체화	45(10.7)
깨달음 115(27.4)	성역할	11(2.6)
	지식의 보족 인식	18(4.3)
	가족의 중요성	3(0.7)

		구분	빈도(%)
		생의 계획	9(2.1)
		부모역할	3(0.7)
		생명의 존엄성	11(2.6)
		남녀 동등성	12(2.9)
		성적자율성	4(1.0)
		성의 중요성	10(2.4)
		성적 자유	2(0.5)
		성문제 인식	30(7.2)
		사랑의 의미	2(0.5)
		태도의 변화 85(20.3)	자연스러워짐
	개방적이됨	16(3.8)	
	민감해짐	2(0.5)	
	솔직해짐	6(1.4)	
	노력의 시도	7(1.7)	
	조심스러워짐	8(1.9)	
	책임감이 생김	5(1.2)	
	자신감이 생김	15(3.6)	
능력형성 38(9.1)		문제해결능력	18(4.3)
		성교육능력	4(1.0)
		이성관계능력	15(3.6)
	의사소통능력	1(0.2)	
자아정립 36(8.6)		성정체감	13(3.1)
		가치관	23(5.5)
정서의 변화 18(4.3)		성에 대한 부정적 감정 탈피	12(2.9)
		성에 대한 긍정적 느낌	3(0.7)
		성에 대한 부정적 느낌	3(0.7)
행동 변화 7(1.7)		성관련 행동(이성관계, 피임)	7(1.7)
		총419(100)	

1) 지식의 변화

대상자들의 서술이 지식의 변화를 분명히 나타내는 서술들을 뽑아 모호하게 알고 있었던 지식을 구체화하는 지식의 구체화, 단순 정보획득, 지식의 수정 세 부분으로 분류되며 총 진술의 28.6%로 가장 많은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관련된 진술들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보획득 영역에 관한 진술들은 "남자에 대해 모르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식이 바탕이된 이해를 할 수 있었다(3)." "많은 생물학적 지식을 배웠다(4)", "성관계의 개인적, 사회적 의미 알게됨", "성에 대한 깊은 이해(7)", "남녀의 성차와 성격차", "피임법의 종류나 방

법, 성병예방, 성병의 증상 등에 대해 많은 정보 알 수 있었음(6)”, “성과 관련된 지식- 성반응, 성병, 자위행위 등을 알게 됨(6)”, “모르고(궁금증) 있던 많은 사실에 대해 앎(28)”, “전혀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인 성병이나 피임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 “성에 대한 올바른고 폭 넓은 지식 갖게됨”, “다른 사람의 성의식(2)”, “실제생활에서 꼭 알아야하며 특히 올바른 지식을 많이 알게되었다(2).” “호기심이 충족되었고”로 나타났다.

지식의 수정 영역에는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음(6)”, “잘못된 통설에 대한 올바른 정설을 알 수 있었다.” “성문화가 얼마나 왜곡되어 왔는지(3)”,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성에 대한 지식이나 성문화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의 진술들이 포함된다.

지식의 구체화 영역에는 “미흡하게 개념화 되었던 사실들이 어느 정도 완성(42)”, “막연한 상식, 지식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론적 배경을 곁들여 숙지했다.” “막연히 알고 있던 지식에 대한 확신 갖게됨”, “성에 대한 것들을 과학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 등이 속하는데 종합해보면 “막연하고”, “허상적”, “피상적”, “모호했던” 것들이 “상세하고”, “확실하고”, “자세”하고, “세밀”하고, “체계”있고, “명확”하게 “구체화”됨을 알 수 있다.

2) 깨달음

깨달음과 지식의 변화는 엄연히 구분하기 어려우나 대상자들의 진술문이 단순히 “배웠다” 보다는 “깨달았다”고 서술하거나 문맥상 깨달았다고 보아지는 진술문을 묶어 분류하였다. 이 범주에는 성역할, 지식의 부족 인식, 가족의 중요성, 생의 계획, 부모 역할, 생명의 존엄성, 남녀 동등성, 성적 자율성, 성의 중요성, 성적 자유, 성문제 인식, 사랑의 의미 총 12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전체의 27.4%를 차지하여 지식의 변화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성역할 영역에 관련된 진술은 “성의 본질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 “배우자가 같이 걸어야 하는 길”, “배우자의 중요한 역할(3)”, “다른 성에 대한 관심과 이해 넓힘(4)”, “서로의 특성을 이해(2)”로 나타났다.

지식의 부족 인식 영역은 무지했었음(16)과, 잘못되거나 왜곡된 지식(2)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부분으로 구분된다. 무지에 관한 진술들로는 “모르고 있는 점이 많았다.” “갖고 있던 지식과 경험이 극히 일부

분이고 외적인 것”, “성병에 대한 대책과 피임에 대한 지식의 부족”, “이전에는 성에 대한 관념이 막연하였고, 정확한 정보나 기준이 없었다.” “성적인 면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지식과 훈련연습 필요로 하는 분야라는 것”, “피임법, 성폭력에 대해 내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 많다는 생각”,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행위와 객관적 또는 생리학적으로 보는 성은 상당한 차이가 있음” 등이 포함되고 잘못되거나 왜곡된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진술은 “단편적이고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 헛된 지식 많았다.”이다.

가족의 중요성 영역에 관한 진술들은 “가족의 중요성”, “부모 자식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자녀양육, 그들과 나와 의 상호연대감의 중요성”으로 나타났다.

생의 계획 영역에 대한 진술들은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해보는 필요성 깨달음”, “삶을 계획, 미래 계획하고 대책 세움”, “결혼생활에 대해 상상해보고 계획도함”, “인생전반에 걸쳐 장기적인 안목을 갖게 해주었고 그에 따른 계획도 세울 수 있었다.” “임신과 출산 준비의 필요성”, “결혼이나 자녀계획 등 막연했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임신과 출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 세워야”, “자녀계획, 피임, 성병예방의 중요성”, “가족계획, 자녀양육,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달음”이 포함된다. 종합해보면 인생전반에 걸쳐 장기적인 안목으로 임신, 출산, 결혼생활, 피임, 성병예방, 자녀양육에 대한 계획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역할 영역에는 “결혼생활, 자녀와의 관계에서의 나의 노력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느낌”, “아이는 혼자 낳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함께 낳는다.” “나는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를 생각”과 같은 진술들이 포함된다.

생명의 존엄성 영역에 관한 진술들은 출산(4)과 유산(7)으로 구분된다. 출산에 관련된 진술들은 “아이를 낳는 일은 근사함”, “생명의 소중함”, “태교의 중요성”, “하나의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에 대한 깊은 의미를 깨달음”이었고, 유산에 관해서는 “아이도 하나의 생명이고 죽이는 것은 살인과 다를 바 없다.”, “유산이란 것이 그토록 끔찍한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줄 몰랐다.”, “낙태옹호론자였는데 낙태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봐야겠다.” “유산을 단순한 것으로만 알고 '뭘

상황이 그러면 할 수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시술 과정을 보니 생각이 바뀌더군요." "유산을 사정에 따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나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3)."라고 진술했다. 유산에 관한 진술들은 유산에 대해 고려해보셨다든지 해서는 안된다는 쪽으로 생각이 치우쳤는데 이는 생명의 존엄성과 관련하여 임신에 대해 신중한 태도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진술들이라 여겨진다.

남녀 동등성 영역에 관한 진술들은 "서로를 동등체로 보는 인식의 전환(3)", "서로 들춰야 하는 존재(2)", "서로 조화를 이루는 관계", "강자나 약자, 수동과 능동의 틀 벗어남", "납과 녀라는 이분법적 사고 탈피", "상대방을 존중", "여성에 대한 편견 탈피", "상호신뢰의 상대방 존중(2)"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강자와 약자, 능동과 수동 이분법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

성적 자율성 영역에 관한 진술은 "이전의 견해가 자율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변이 제약이나 눈총에 의해 결정된 것", "관습적 구속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느낌", "성문제, 남녀관계문제는 남성의 문제, 타인의 문제가 아닌 바로 나의 문제", "성관계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자율적이고 자신의 의사표현을 정확히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다가옴"이 포함된다.

성의 중요성 영역에 관한 진술들은 "성이란 이성관계에서의 중요한 매개가 됨", "성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아껴야겠다는 생각", "성이 인간에게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6)", "책임이 따르고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함", "일반적으로 추하다고 생각되는 성을 객관적인 학습을 통해 더 이상 추한 것이 아닌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포함된다.

성적 자유 영역에 대한 진술은 "성적인 자유가 그 자유라는 단어의 가치만큼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 이면에는 인간을 구속하는 또 다른 이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됨", "스스로도 개방화된 성 문화에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로 나타났다.

성문제 인식 영역에 관한 진술은 "좀 더 성을 가까운 것으로 또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으로 느낌", "성에 대한 문제들이 이렇게 어려운 것", "성범죄의 실태, 10대 청소년들의 범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됨", "지금의 현 실태 인정", "성병 남의일 아님", "성행동이 미치는 여러 영향에 대해 실감", "자유로운 성생활의 영향이 엄청나다는 것", "성폭력의 심각성 (14)", "성폭력을 너무 남의 일, 나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일로

만 생각했었다.", "성폭력 피해자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했었다." "잘못가지고 있던 성폭력 등에 대한 인식이 바뀜", "음담패설이나 장난으로 여성에게 남성들은 이야기를 걸지만 그런 것도 성폭력의 일종임을 알게됨", "성병과 성폭력은 나를 피해서 일어날 것이다." "강간당한 여성에게 책임 전가시키는 말 절대할 수 없는 말"이었고, 성폭력에 관한 사회현실에 대한 진술에는 "성폭력 피해자 보는 눈길이 차갑고 냉담하다는 사실", "여중생의 출산문제가 성폭력이었다는 사실", "성기의 삽입이 아닌 성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포함된다. 성폭력에 관한 진술들을 살펴보면 성폭력의 심각성, 성폭력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음을 깨달음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성폭력 실태가 세계 제 2위라는 보고를 반영하고 있다.

사랑의 의미 영역에 대한 진술은 "나라는 주체 없이 상대방을 위해 온전히 희생하는 것이 참사랑인 줄 잘못 알고 있었음", "내 남자친구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되어 감정의 낭비는 더 이상 없게 됨"이 포함된다.

3) 태도의 변화

자연스러워짐, 개방적이 됨, 민감해짐, 솔직해짐, 노력의 시도, 조심성이 생김, 책임감이 생김, 자신감이 생김의 총 8개 영역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변화의 20.3%를 차지한다. 관련된 진술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연스러워짐에 관한 진술들은 "막연하고 숨겨져왔던 성에 대해서 자연스러워졌고(8)", "이성과의 거리감 많이 줄음", "성 용어에 대한 친숙함", "성에 대한 친숙도의 증가, 불편의 정도가 낮아짐", "스스럼없이 동성 내지 이성들과 성에 관하여 담론을 나눔", "자유롭게 생각하고 들을 수 있다", "성적인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 어색하지 않음(4)", "과민반응 사라짐", "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꺼려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적어짐", "불편(부자연)하고 쑥스럽던(낯뜨겁던, 얼굴을 붉히던) 성이란 개념 편하고 자유스러워짐(5)", "땀땀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됨(2)" 등으로 종합하면 막연함, 숨겨움, 불편, 쑥스러움, 거리감, 과민반응, 얼굴을 붉힘, 꺼려함 등이 사라지고 어색하지 않음, 친숙해짐, 자유스러움, 자연스럽게 되어졌다.

개방적이 됨 영역에 속하는 진술들은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던 성에 대한 생각과 관심을 밖으로 표출",

“탁 터놓고”, “성에 대한 개방화의 인식을 갖게되었다(6)”, “폐쇄적인 이성관계에서 개방적인 이성관계”, “혼전성관계에 대한 생각 무조건 반대에서 긍정적이 됨”, “당당한 표출”, “성에 대한 고정적이고 보수적인 생각에서 벗어남”, “폐쇄적이고 편협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남(4)”이다. 종합해보면 고정적, 보수적, 편협한 고정관념 등의 폐쇄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당당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변화했다.

민감해짐 영역에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좀 더 민감해짐”, “얼마나 둔했었나 느낄 수 있었다.”의 진술들이 포함된다.

솔직해짐 영역에는 “성에 대해 솔직해지는 경향(4)”, “진솔한 대화도 가능하게 되었다.”, “솔직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성문제를 논의할 수 있게됨”이 포함된다.

노력의 시도 영역에는 “동성애에 관해 이해해보려고 노력”, “성정체감 확립 위한 노력이 계속 이루어짐”, “기존의 성가치 제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노력하게 됨(2)”, “상황에 대해 생각하고 가치 등을 판단하고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악습이 있다면 벗어나려 함이 포함된다.

조심성 영역에는 “좀 더 많은 신경을 쓰리라”, “젊어서 몸을 마구 써서 안되겠다는 생각”, “태도에 좀 더 조심스러워짐(3)”, “기본적 지식을 갖추므로 인해 행위에 앞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 “늘 조심하고 위협에 대비하는 자세”, “예방하기 위한 태도 형성”의 진술을 포함한다.

책임감 영역에 속한 진술들은 “지식인, 인간으로서의 책임감(2)”, “남녀가 만나는 과정은 그 시작부터가 상당한 책임을 가지고 임해야하는 일”, “앞으로는 모든 것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시도”, “성관계를 기분에 따라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하면 안된다”이다.

자신감 영역에 관한 진술들은 “대담해져서 다른 성과 거리낌없이 대화할 수 있음”, “뚝뚝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됨(2)”, “결혼생활을 훨씬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의 이성관계나 결혼생활에 있어서 좀 더 여성 이해하고 함께 상호보완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다는 자신감”, “출산과정 생생히 알게 됨으로서 그에 대비할 수 있다는 자신감”, “남자친구를 둘이서 만날 때 두려움이 없어지고 자신 있음”, “자신감 갖게됨”, “성에 대한 금기와 소극적 태도를 꺾”, “지혜롭게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성급한 자신감”, “수동적 차

원에서 능동적 차원으로(3)”, “앞으로의 생활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 등을 포함한다.

4) 능력형성

이 범주에는 문제해결능력, 성교육 능력, 이성관계 능력, 의사소통능력의 4영역이 포함되며 전체의 9.1%를 차지한다.

문제해결 능력 영역에는 “앞으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음(10)”, “본인의 삶에 대한 전략적인 입장을 보다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많은 전문적인 지지와 강화”, “나 자신을 돌아보며 성숙하게 됨”, “더 깊이 있고 성숙한 생각을 갖게 됨”, “폭넓은 사고”, “실생활적인 처세에 대해 도움 받음”, “시행착오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 “심리적으로나 지적으로 나의 내적 성장에 도움이 됨”, “성에 관해 경험이 있는 학생으로 또 결혼이나 출산, 육아가 그리 멀지 않은 학생의 입장에서 큰 도움”의 진술이 포함되어 잠재적인 문제해결 능력의 향상을 나타낸다.

성교육 능력 영역에는 “상대방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바로 가르쳐주고 싶다.” “성폭력 상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2).”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친구들에게 많이 전해줌”이 포함된다.

이성관계 능력 영역에는 “가치관, 성격, 생활태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커짐”, “여자친구와 그에 관한 얘기를 많이 나눔으로서 우리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었다.” “진정으로 여자친구를 위해 줄 수 있다.”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음”, “이성을 이해하는 면이 많이 향상됨(4)”, “성관계 서로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길 터득”, “서로를 위해 행동할 수 있게 됨”, “이성을 대함에 있어서 보다 포용력있게 맞이하 수 있음”, “금욕, 방어능력이 생김”, “주체적으로 서로의 관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음”, “이성교제에 큰 도움(2)” 의사소통능력 영역에는 “남자애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됨”이 포함된다.

5) 자아정립

성정체감과 가치관의 영역이 포함되며 전체 반응수의 8.6%를 차지한다.

성정체감 영역에는 “성정체감 형성(4)”, “어떻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나쁘게만 기억되고, 상처받았다고, 손해였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음”, “내가 가진 정말 가장 기본

적인 성관계에 대한 인식이 어떤 것인가 알게됨”, “내성에 만족하고 남성과 다른 점을 최대한 발휘하여 다양한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긍정적, 포괄적, 안정적인 느낌 가지게 됨”, “성적 존재로서 인식(2)”, “내 자신을 새롭게 발견”,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고민을 하지 않은 채 그 열매에 대한 기대만으로 살아온 것 같다.” 라는 진술이 포함된다.

가치관 영역에는 남녀관계관(2), 동성애관의 변화(5), 성가치관 정립(16)으로 구분되는데 남녀관계관에 관한 진술로는 “배우자에 대한 가치관 정립”, “남녀관계에 대한 관점이 많이 변화한 것 같다.”였다. 그리고 동성애관의 변화에 관한 진술에는 “동성애에 대한 주관이 바뀐(5)”이 포함된다. 성가치관 정립에 관한 진술들은 “어떤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을 수용하고 거부할 방법 초차 몰랐다.” “성문화의 잘못된 점을 알게됨(2)”, “성관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 “성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터부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 “성은 남녀 모두에게 그 자아의 전체적, 총체적 면을 반영할 수 있는 매체요 동시에 대상일 수 있다는 점”, “성은 신성할 수도, 때로는 가장 큰 폭력이라는 생각”, “성에 대한 관념들이 혼돈 속에서 조금 이나마 내것으로 자리 매김(2)”, “올바른 성가치관 정립(3)”, “판단의 기준이 섬(2)”, “성에 대해 모르는 척 해야 정숙하다라고 잘못 생각해옴”, “결혼제도에 대한 생각 바뀐”들이 포함된다.

6) 정서의 변화

정서의 변화 범주에는 성에 대한 부정적 느낌으로부터의 탈피, 성에 대한 긍정적 느낌과 부정적 느낌의

3영역으로 구분되며 총 변화의 4.3%를 차지한다. 관련된 진술들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들로부터의 탈피 영역에는 “성에 대한 부끄러움(2)”, “수치심”, “불편”, “두려움과 거부감”, “이성에 대한 무지에서 인한 무섭고 두려움(2)”, “비밀스럽고, 은밀하고, 감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 “성이란 드러내면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알았다.” “음성적으로 숨겨왔던 성(2)”이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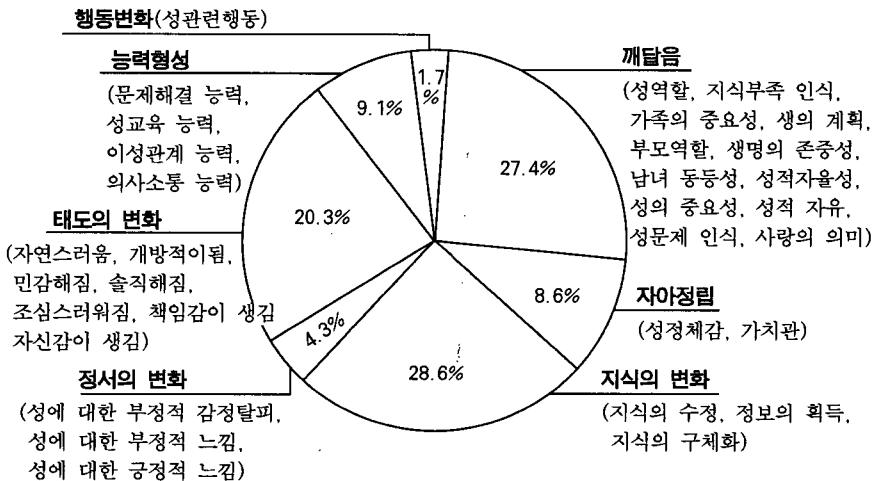
긍정적인 느낌 영역에 대한 진술은 “긍정적, 포괄적, 안정적인 느낌을 가지게 됨”, “성 용어에 대한 친숙함, 편하고 자유스러워짐”, “결혼, 출산, 양육을 인생설계 속에 포함시켜 정신적으로 자란 듯한 느낌”이 포함된다.

성에 대한 부정적 느낌 영역에는 “출산의 장면은 아이를 낳기 싫다, 무섭다, 두렵다라는 생각을 갖게 함”, “성에 대한 문제 어려움을 깨닫고 막막하고 무섭다.” “중요성과 의미를 알면 알수록 더 자신이 없다.”가 속하는데 체계적으로 계속적인 성교육이 실시되면 이러한 느낌들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긍정적인 느낌과 자신감이 유도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7) 행동의 변화

성관련 행동 영역이 속하며 전체의 1.7%를 차지한다. “앞으로 인해 피입할 때 주위를 요하게됨(2)”, “행동에 좀 더 조심스러워짐(3)”, “성관계 재정립”, “서로를 위해 행동할 수 있게”됨의 진술들이 포함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그림 1참조).



<그림 1> 성교육 후의 변화

V. 논 의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대상자가 성교육을 받은 후 경험한 변화에 대한 진술은 성에 대한 긍정적 변화 인식역할, 지식의 부족 인식, 가족의 중요성, 생의 계획, 부모역할, 생명의 존엄성, 남녀동등성, 성적자유성, 성의 중요성, 성적자유, 성문제 인식, 사랑의 의미, 성정체감, 가치관, 지식의 수정, 정보획득, 지식의구체화, 성에 대한 부정적 감정 탈피, 성에 대한 긍정적 느낌, 자연스러워짐, 개방적이됨, 민감해짐, 솔직해짐, 노력의 시도, 조심스러워짐, 책임감이 생김, 자신감이 생김, 문제해결 능력 향상, 성교육 능력향상, 이성관계 능력향상, 의사소통 능력향상 성관련 행동의 32개 영역과 1개의 부정적 변화영역인 성에 대한 부정적 느낌영역을 포함해 총 33개 영역으로 분류된다. 이들 영역은 깨달음, 자아정립, 지식의 변화, 정서의 변화, 태도의 변화, 능력형성, 행동변화의 총 7개로 범주화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일부 대학생들의 성교육 수강후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교육효과 측정시 포함되어져야 할 요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깨달음의 범주에는 성역할, 지식의 부족 인식, 가족의 중요성, 생의 계획, 부모역할, 생명의 존엄성, 남녀동등성, 성적자유성, 성의 중요성, 성적 자유, 성문제 인식, 사랑의 의미 영역으로 구분되며 자아정립의 범주에는 성정체감, 가치관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성교육 수강후 성문제 인식 영역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가치관의 변화, 지식의 부족 인식 영역의 순으로 변화가 많이 나타났다. 성문제 인식중 성폭력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는 빈도가 가장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성폭력실태가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심각성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폭력특별법 제3조 2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개정안 제3조 3항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방지에 필요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신설되었다. 이는 성폭력방지를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예방적 차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시사한다.

전통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차지해오던 역할에도 많

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사회가 효과적인 적응을 위해서는 한 개인에게서 양성의 특성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구조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며(박경숙, 1988), 진정한 성교육은 전반적인 남녀간의 차이와 동질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 속에서 보다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평등한 성의식과 평등한 성역할 정립에 대한 이해를 보다 더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양해경, 1996)에서 보여지듯이 성역할 정립은 효과측정의 중요 요소로 여겨진다.

황은자(1988)의 연구에 따르면 성교육 담당교사들은 고정관념적인 성역할 태도를 갖고 있으므로 의식적인 무의식적인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표출되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주는데 대학생 특히 교직과목을 이수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프로그램 효과측정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고, Kirby & Alter(1980)의 연구에서도 성역할은 성교육의 효과측정에 포함되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런 역할은 한 개인이 그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규정하는 성에 적합한 행동, 태도 및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

Marcia & Friedman (1970)의 연구에서 여성의 성문제는 안정된 자아정체감이 결여된 경우 무분별한 성행동을 하게 된다는 연구결과와 자아정체감이 안정될수록 성경험은 적은 것으로 나타난 박명희(1989)의 연구를 볼때 대상자들이 자아정체감이 형성되었다고 진술한 것은건전한 성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정체감 형성은 성교육 효과측정에 포함되어져야 할 요소로 여겨진다.

지식의 변화범주에는 지식의 구체화와 단순정보 획득, 지식의 수정 세 영역으로 분류된다. 정보획득 영역에서는 모르고(궁금증) 있던 많은 사실에 대해 알았다고 한 진술이 가장 많았고, 생물학적 지식, 성반응, 성병증상과 예방, 자위행위, 피임법의 종류나 방법 등에 관한 것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지식의 수정에는 왜곡되었던 지식이 바로잡힌다는 진술문들이 포함되고 지식의 구체화에는 막연하고, 허상적, 피상적, 모호하고, 미흡하게 개념화되었던 사실들이 상세하고, 확실하고, 자세, 세밀, 체계, 명확하게 구체화된다고 하였다. 이는 성지식 습득경로가 연구(이난영, 1992; 박애신, 1993; 양해경, 1996; 양성숙, 1992)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정규적이고 체계화된 성교육을 통해서 보다는 대중매체나 친구, 잡지, 라디오, TV를 통한 정보가 대부분이어서 단편적이고 흥미 위주의 성지식

을 불건전한 방법으로 배우고 있어 부정확한 성지식과 왜곡된 성 인식을 가지기 쉽다(박애신, 1993)고 했는데 성교육을 통해 왜곡된 부분이 수정되고, 여기 저기서 들어서 단편적이었던 성지식이 구체화되고 체계화됨을 보여줘 체계적인 성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일방적인 지식의 주입보다는 토론중심의 교육을 통해 각 개인에 초점을 둔 성교육이 실시되어 지식의 확대가 태도와 행동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정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성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적으로 금기시되어 왔고 더구나 우리사회에서 성문제를 운운한다는 것은 "쑥스러운 일" 혹은 "점잖지 않은 일"로 여겨져왔듯이(조원표, 1993; 한종철, 1993) 성을 드러내기를 꺼려하여 은폐시키거나 위상화, 심지어는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그러나 성교육전에 성에 대해 부끄러움, 수치심, 두려움과 거부감, 무서움, 비밀스러움, 은밀함, 감추어야 할 것, 불편하게 느꼈던 생각, 성이란 드러내면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알았던 생각, 음성적으로 숨겨왔던 성이라고 생각했던 감정이 성교육으로 인해 "깨지고" 성이 결코 비밀시하고 이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 성에 대해 긍정적, 포괄적, 안정적 인 느낌을 가지게 되고, 성 용어에 대해 친숙해지며, 성에 대해 편하고 자유스러워졌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대상자들은 "출산의 장면은 아이를 낳기 싫다, 무섭다, 두렵다라는 생각을 갖게 함", "성에 대한 문제 어려움을 깨닫고 막막하고 무섭다.", "중요성과 의미를 알면 알수록 더 자신이었다."라고 반응하고 있는데 이는 성교육이 단지교실에서 공동적으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감정에 초점을 두고 사적인 영역을 다룰 수 있는 상담의 활성화가 병행되는 것이 중요함을 뒷받침한다. 결론적으로 체계적인 성교육을 통해 이제는 성을 숨기고 부끄러워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정확하게 알므로서 모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고 이런 측면이 성교육 효과 측정에 고려되어야 한다.

태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성교육 전의 성에 대한 막연함, 숨겨움, 불편, 쑥스러움, 거리감, 과민반응, 얼굴을 붉힘, 꺼려함 등이 사라져 어색하지 않고, 성용어와 성에 대해 친숙해졌고, 자유스럽고, 자연스럽게 되어졌다. 또 고정적, 보수적, 편협한 고정관념 등의 폐쇄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당당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변화했다. 동성애에 관해 이해해보려고 노력, 성정체감 확립 위

한 노력, 기존의 성가치 제거하기위해 부단히 노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는 노력, 상황에 대해 생각하고 가치 등을 판단하고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노력, 약속이 있다면 벗어나려는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즉 성에 대해 자연스러워 졌고, 개방적이 됐고, 민감해졌고, 솔직해졌으며 조심성, 성에 대한 책임감, 자신감이 생겼다. 이는 성교육이나 성문제를 다룰 때에 전제되어야 하는 문제인 성에 대한 과민반응을 약화시켜 과민한 부분에 대한 둔감성을 강화시켜야하는 목적과 부합한다. 책임감의 향상은 Turner의 6인(1994)의 대학 신입생 세미나 내에 성교육과정을 포함해 교육후 책임감 있는 성행동 향상결과와 박순선(1993)의 성교육 후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는 연구결과와 Zuckerman(1976)의 대학생을 상대로 성교육과정을 실시한 후 성에 대한 태도가 더 관용적이었다는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능력형성 있어서는 문제해결능력, 성교육 능력, 이성관계능력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영역에서의 능력향상은 행동변화와 직결되는 중요한 변화들로 여겨지며 성교육 효과측정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할 영역으로 사료된다. 박영신(1988)의 연구는 성교육과 성에 대한 태도와는 매우 유의한 상관관이 있어 학생들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형성시켜줄 수 있는 성교육이 매우 필요하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강희경(1992), 김옥란(1987), 김진선(1995)의 연구에서는 성교육 실시후 성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성교육 실시시간과 실시후 성태도의 변화를 측정하는 시기와 측정도구와 많은 관련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행동의 변화는 앞으로 인해 피임할 때 주위를 요하게 되었다는 피임에 관련된 행동과, 행동에 좀 더 조심스러워짐, 성관계 재정립, 서로를 위해 행동할 수 있게 됨 등의 이성관계 측면에서의 행동변화가 나타났으나 행동변화 빈도가 낮은 것은 행동변화에 대한 교육효과가 낮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대상자들이 아직 성적으로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도 해석될 수 있다.

Zuckerman, Tushup 과 Finner(1976)의 연구에서는 대학에서 성교육과정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대략 같은 정도로 성경험이 증가하였음을 보고했다.

또한 Lance(1975)도 대학생의 성행동에 대해 성교육이 미친 영향에 관해 조사한 결과 성교육 실시전에 성

교, 구강-항문 성교, 동성애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성교육을 받는 동안 아무도 이러한 행동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Shipley(1974)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 이성관계, 피임에 대해 교육한 후 효과를 조사한 결과 교육전과 교육후 사이의 피임에 관한 지식은 증가했고, 비효과적이거나 피임을 사용하지 않는 학생수가 57% 감소한 반면에 효과적인 피임 방법을 사용하는 학생수가 33% 증가하였다고 보고했다. 즉 성교육은 성행동을 증가시키기보다는 피임사용시 더 조심(더 효과적인 피임 사용)하게 되고, 성관계를 재정립하게 하여 원하지 않은 임신이나, 성병감염에 대해 예방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성교육후 예방적 측면과 수정적 측면이 고려된 요소가 행동변화 측정에 포함되어져야 한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한 성교육의 효과를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개발을 위한 예비자료를 제공하려는 연구목적에 갖고 서울에 소재한 Y 종합대학에 재학 학생중 "성과 남녀관계" 과목을 수강한 학생 155명을 대상으로 강좌를 통하여 대상자 자신이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 상세하고 자유롭게 진술하도록한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얻은 내용을 분석한 내용분석 연구이다. 분석된 내용 범주화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위하여 4명의 연구자가 4회에 걸쳐 범주할당 적절성에 관해 논의와 합의를 통해 전원이 합의할 때까지 반복 논의하여 분석되었다. 응답된 총 419개 내용은 33개의 영역으로 분류되며 7개의 범주로 구분되었다.

자료분석결과 깨달음의 범주에는 성역할, 지식의 부족 인식, 가족의 중요성, 생의 계획, 부모역할, 생명의 존엄성, 남녀동등성, 성적자율성, 성의 중요성, 성적 자유, 성문제 인식, 사랑의 의미영역으로 구분되며 자아정립의 범주에는 성적체감, 가치관영역이 포함된다.

지식의 변화 범주는 지식의 구체화, 정보획득, 지식의 수정 세 부분으로 분류되었다.

정서의 변화는 성에 대한 부정적 느낌으로부터의 탈피, 성에대한 긍정적 느낌과 부정적 느낌의 3영역으로 구분되었다.

태도의 변화 범주에는 자연스러워짐, 개방적이 됨, 민감해짐, 솔직해짐, 노력의 시도, 조심성이 생김, 책임

감이 생김, 자신감이 생김의 8영역을 포함하며 문제해결능력, 성교육 능력, 이성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의 4영역은 능력형성 범주에 속한다.

행동의 변화는 앞으로 인해 피임할 때 주위를 요하게되었다는 피임에 관련된 행동과, 행동에 좀 더 조심스러워짐, 성관계 재정립, 서로를 위해 행동할 수 있게 될 등의 이성관계 측면에서의 행동변화가 나타났다.

성에 대한 부정적 느낌 영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냈다. 성에 대한 부정적 느낌 영역은 부정적인 변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성교육 진행 시에는 성에 대한 부정적 느낌으로의 변화를 막기 위해 개인별 사정에 근거한 방향제시나 상담이 병행되어야 함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결과 성교육후 효과측정 내용은 보다 행동중심적 주체로서의 자율성 측정과 성과 인간문제의 지식 수준을 넘어서 깨달음, 행위능력 수준으로 측정되어야 할 정당성이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면담법을 통한 효과측정을 시도하여 종합할 것을 제언한다.
2.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영역별확인과 대상자를 확대하여 영역별 타당한 내용측정의 가능성 확인을 위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희경 (1992). 성교육을 통한 국민학교 아동의 성에 관한 지식 및 태도 변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상조 (1993). 국민학교 교사들의 성교육에 대한 태도.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여옥 (1993). 중학교에서의 성교육. 인간발달교수연구회 제7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학생들의 성문제, 성교육 어디까지 왔나?
- 김옥란 (1987). 국민학교 6학년의 성교육 필요도와 성교육에 의한 성지식과 성역할에 대한 태도의 변화.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 김정옥 (1988). 학교 성교육의 내용체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김진선 (1995). 성교육이국민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에 미치는효과.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2), 174-190.

남녀평등과 인간화 (1989). 연세대학교 여학생처.
 박경숙 (1988).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이에 따른 심리·사회적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박명희 (1989). 일부 중·고 여학생들의 성에 관한 지식, 태도 및 경험에 관한 연구. 중앙의학, 54(8), 607-619.
 박순선 (1993). 국민학교 5·6학년학생의 성교육 실시전·후 성에 관한 지식 및 태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애신 (1993).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와 성지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영신 (1988). 일부사범대학생의 성에 대한 태도와 성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중앙의학, 53(6), 393-413.
 박준희 (1977). 교육적 측면에서 본 성교육. 대한 불임학회지, 4(2), 1-4.
 양성숙 (1992). 청소년의 성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양해경 (1996). 학교 성교육의 실태 분석 및 새로운 제안. 학술발표: 학교 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양해경 (1996). 학교 성교육의 제도. 올바른 성교육 정착을 위한 전문가 정책토론회, 주최: 한국여성단체연합.
 이기현 (1985). 성교육후 일개 고등학교 여학생의 성에 관한 태도 및 지식변화에 관한 연구-서울시 일 남녀공학교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이난영 (1992). 여자중학교의 성교육 실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이명화 (1993). 고등학교에서의 성교육. 인간발달 교수연구회 제7차 학술대회, 주제: 학생들의 성문제 성교육 어디까지 왔나?
 이인숙 (1994). 일부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 및 성교육 요구에 관한 조사연구.
 이종범 (1993).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교사와 학부모의 태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조선일보, 1996년 8월 19일자 기사
 조원표 (1993). 고교생의 성고민과 욕구와의관계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청소년상담실 9년간활동보고서(1993). 서울 YMCA.
 한중철 (1993). 고교생의 성고민과 욕구와의 관계

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홍길유 (1989). 국민학교 성교육의 현황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황은자 (1988). 성교육 담당교사의 성역할고정관념적 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대여성학과대학원
 Harris.A. (1974). What does sex education mean? ed., Rens & Rogers, Sex Educ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Kirby, D.(1980). The effects of school sex education programs: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School Health, 50(10), 559-563.
 Kirby, D. (1984). Sexuality education: an evaluation of programs and their effects. Santa Cruz, California: Network Publications.
 Kirby, D. (1992). School-Based Programs to Reduce Sexual Risk-Taking Behaviors. Journal of School Health, 62(7), 280-287.
 Levenson-Gingiss, P. & Hamilton, R. (1989). Evaluation of Training Effects on Teacher Attitudes and Concerns Prior to Implementing a Human Sexuality Education Program. Journal of School Health, 59(4), 156-160.
 Marcia, J.E. & Friedman, N. L. (1970). Ego identity status in college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2, 249-269.
 Mims, F.H., Brown, L. & Lubow, R. (1976). Human Sexuality. Course Evaluation. Nursing Research, 25(3), 187-191.
 Parcel, G. & Luttmann, D. (1981). Evaluation of a sex education course for young adolescents. Fam. Relat., 30(1), 55-60.
 Russell-Brown, P., Rice, J., Hector, O. & Bertrand, J. (1992). The Effect of Sex Education on Teenagers in St. Kitts and Nevis. Bulletin of the 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 26(1), 67-79.
 Shipley, R. (1974). Changes in contraceptive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 in a

college current health problems class. PhD dissertation, Temple University.

Turner, J.C., Garrison, C.Z., Korpita, E., Waller, J., Addy, C., Hill, W.R. & Mohn, L. A. (1994). Promoting responsible sexual behavior through a college freshman seminar. AIDS education & prevention, 6(3), 266-277.

Zelnick, M. & Kim, Y. (1982). Sex education

and its association with teenage sexual activity, pregnancy and contraceptive use. Fam Plann Perspect., 14(3), 117-126.

Zuckerman, M. Tushup, R. & Finner, S. (1976). Sexual attitudes and experience: Attitude and Personality correlates and changes produced by a course in sexuality. Journal of Consult Clinical Psychology, 44(2), 7-19.

A preliminary study for the evaluation of the effects of sex education program on college students

Chang, Soon-Bok* · Choi, Yun-Soon* · Kang, Hee Sun** · Park, So-Mi*

This study was performed to provide preliminary data for the development of a useful instrument to measure the effect of sex education. The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155 college students enrolled in the course "Sexuality and Relationship" at Y university in Seoul. At the end of that course, they were asked to write freely about the change they had experienced on sexuality. All meaningful statements were elicited and classified into 7 categories; "Change of Knowledge", "Enlightenment", "Change of Attitude on Sexuality", "Buildup of Ability", "Buildup of Identity", "Change of Emotion", "Change of Behavior." There were significant changes in the areas of knowledge(28.6%), enlightenment(27.4%), and attitudes(20.3%) about sexuality among these 7 categories.

The Change of Knowledge category consists of 3 areas: "concretion of knowledge", "increase of information", and "correction of misunderstanding."

In the category of Enlightenment, total 12 areas are included: "sex role", "erception of lack of knowledge", "importance of family", "life plan", "parent role", "value of life", "equality", "sexual autonomy", "importance of sexuality", "freedom of sexuality", "perception of sexual problem", and "meaning of love."

The Attitude Change category consists of 8 areas. These are "being natural", "being progressive", "being sensitive", "being truthful", "being expressive", "being cautious", "being responsible", and "being confident".

The category of Buildup of Ability includes 4 areas: "problem solving", "sex education",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The category of Buildup of Identity includes "sexual identity", and "value of sexuality".

The Emotional Change category includes 3 areas: "positive feeling", "negative feeling", and "breaking from negative feeling on sexuality".

The Behavior Change category includes "sex-related behavioral change".

In conclusion, up to now most researches on sex education effect measures only changes of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But we believe the changes in "Enlightenment", "Buildup of Ability", "Buildup of Identity", "Change of Emotion", should be included in addition to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in the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the sex education effects. And the effect of sex education should measure the degree of learning of autonomy, enlightenment, and ability of behavior and so on rather than studying the simple changes in sexuality.

* Department of Maternity Nursing,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 Researcher, Research Institute for Home Health Care,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